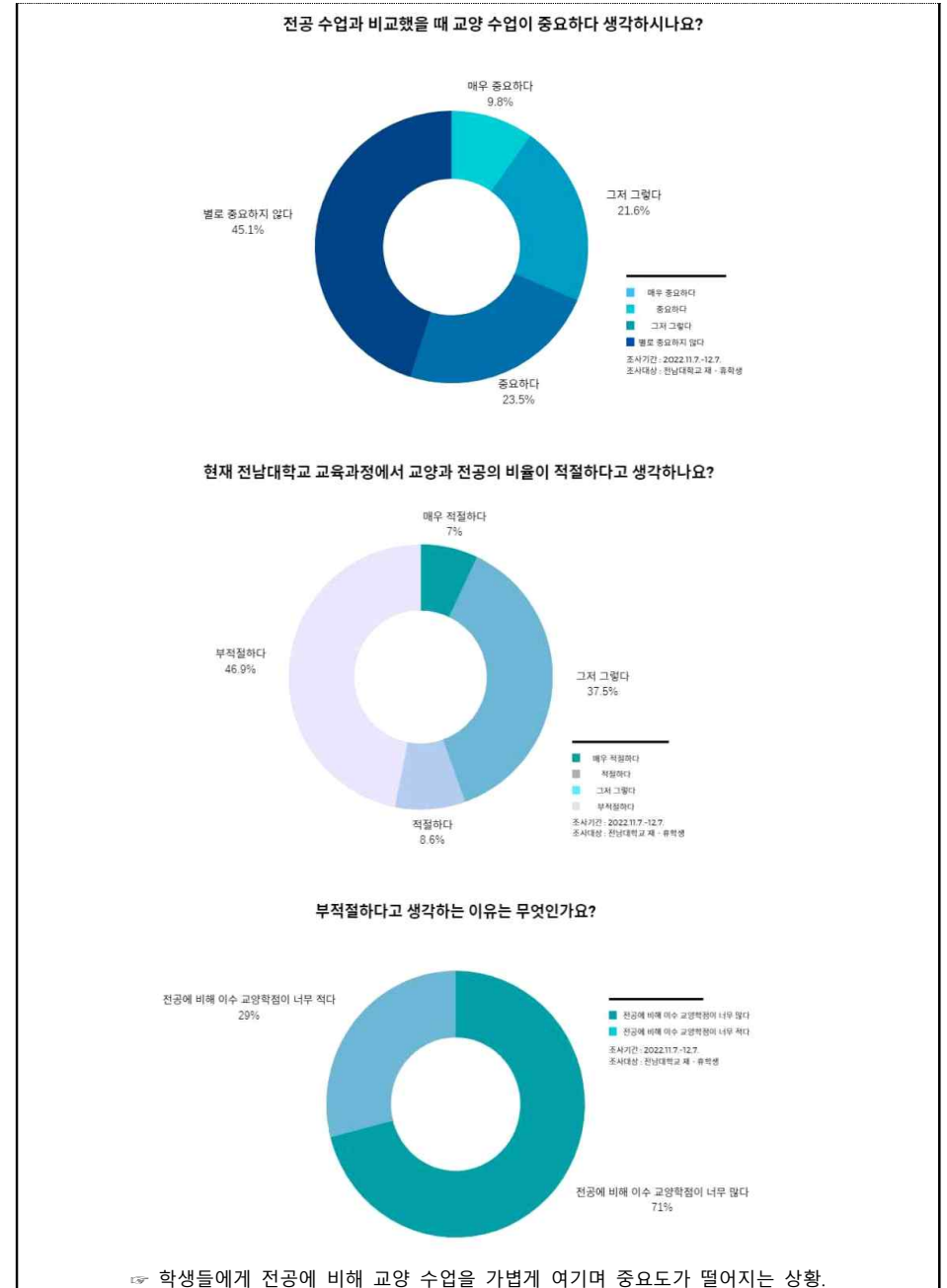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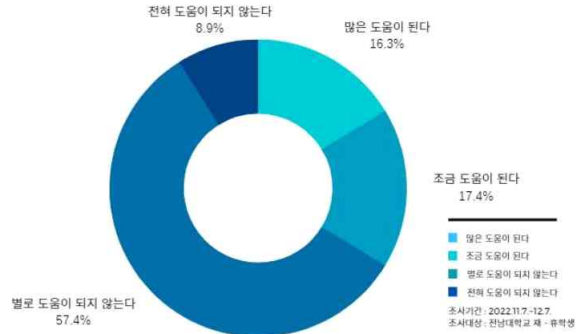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최종 결과보고서

모듬명		2022 2학기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구성원 인적사항	대표	이름	학과(부)	학번		
	구성원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제안 영역		1. 평가 방법				
		2. 수업 방법				
		3. 수강 신청				
		4. 교육 환경				
		5. 교양에 관한 인식 개선				O
1. 주제는 무엇인가요?						
교양 수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학생들에게 확립하고 이를 통해 얻어 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교양 수업 탐색을 유도하고, 본교에는 이를 위한 커리큘럼을 참고할 만한 방안 제안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1. 교양 수업을 가벼이 여기는 학생들의 인식과 단순 학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세태						
2. 전남대학교 내 교양의 본질을 담은 구체적인 커리큘럼의 부족 및 홍보 부족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Theme 1. 학생들의 교양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p>						



현재 개설되고 있는 교양 과목이 "현재" 또는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교양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인원이 느끼고 있음.

Theme 2. 학생들의 교양 인식 관련 인터뷰 정리

<교양 부정적 의견>

- 사범대학 ㄱ 씨 : "과 특성 상 매 학기 교직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교직과목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편이라 생각하는데, 그와 함께 교양 교과목을 듣다 보면 매일 과제에 치여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임용시험을 볼 예정이라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전공 관련 내용인데, 불필요한 교양과목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조금 버겁다. 개인적으로 **교양과목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어서**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 교양이 학생들에게 덜 부담스러운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 생활대학 ㄷ 씨 : "대학에 들어와서 항상 '꿀교양'이라 불리는, 학점 따기 쉬운 교양과목만 수강해왔다. 전공 공부나 대외활동, 자격증 공부 등 스펙 쌓기에도 바쁘는데 그 와중에 교양교과에 힘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험도 쉽고, 과제도 간단하며 수강생이 많아 a+ 비율이 높은 강의를 주로 수강해왔다. 그 때문인지 매번 학기가 끝나면 **교양 과목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어차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교양 과목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 가면 좋을 것 같다."

☞ 학점 채우기 용도로 교양을 듣다보니 수업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

<교양 긍정적 의견>

- 인문대학 ㄴ 씨 : "전공 수업만 듣다 보면 너무 대학수업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양 교과목이 환기를 도와주는 느낌**이다. 교양 교과목이 전공교과에 비해 비교적 경시되는 느낌도 있지만 말 그대로 교양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다. 교양은 교양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볍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ㄱ 씨 : "우리 대학 교양에서 **실제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 같은 경우 대학 첫 학기에 수강했는데, 기본적인 글쓰기 방식 및 형식, 쓰기 윤리까지 유용한 글쓰기 전략을 배울 수 있었다. 덕분에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제출을 마쳤던 것 같다. 주변에서도 교양을 학점 채우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모두들 **교양만이 가지는 신선함을 잘 이용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교양을 통해 전공과 달리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점을 배울 수 있고, 리프레쉬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Theme 3. 교양의 정의와 유용성에 대한 교수님들의 생각

Q1.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교양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은주 교수님>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왔을까요? (수능 점수를 제외하고)전공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직업전문학교를 가지 않고 대학교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인에게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는 '여유시간'의 유무였습니다. 노동과 노동, 정해진 일정과 일정 사이에 낼 수 있는 잠깐의 짬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으로서의 여유를 그리스인들은σχολή (scholē)라고 불렀습니다. 짐작하다시피 이 단어가 훗날 학교를 의미하게 되었지요. 중세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서양에서는 대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기사와 농노, 성직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럽사회에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창궐한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상업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 법률가를 양성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는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인이 될 이들에게 전공 교육을 하기 전에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위해 이른바 '자유학예(artes liberalis)'라 불리는 7개의 교양 과목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교양이란 그런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시민을 위해, 직업인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학문이 교양입니다. 자유롭게 필요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민으로 긴 밤을 뒤척일 사람을 위한 배움이 교양과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전남대학교 인문연구원 류도향 교수님>

교양은 어원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기예에 대비되는 자유로운 기예(liberal art)에서 비롯했습니다. (위키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A%B3%BC>) 즉 생활상의 필요와 실용적 목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데 교양의 본질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현구 교수님>

저는 **교양을 도구 과목으로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공 외 지식을 습득하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학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정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입문하기 위한 창구**로 교양과목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자신의 관심사나 적성을 찾는 과정에서 교양수업을 통해 도움을 받길 희망한다면 아마도 한 학기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학과 삶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했다면, 그다음 연계된 수업으로 철학과 1-2학년 전공수업을 통해 조금 더 비판적 사고를 확장해보는 것이 필요할입니다.

☞ 교양이란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위한 것이며, 자유인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전공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입문하기 위한 창구이다.

Q2.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이 교양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은주 교수님>

인생에는 꽃으로 단장한 봄도, 강렬한 생명력을 내뿜는 초록의 여름도, 그리고 세상 모든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가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색을 잃고, 이야기마저 사라진 듯한 겨울도 있습니다. 그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에 떠올릴만한 시조차 없다면 겨울이 너무 춥지 않을까요? 너만 힘든게 아니라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교양수업이란 **이토록 행복한 지금보다는 바로 그 '언젠가'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자유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목을 선택할지, 직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좋은 학점을 쉽게 얻을수 있는 교양을 택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전남대학교 인문연구원 류도향 교수님>

전남대의 인재상이 "자유롭고 당당한 전남대인"으로 변경되었던데요 이런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양 수업이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점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성공하고 유능한 사회인이 되는 것과 무슨 일을 하던 자기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니까요.

교양 수업은 **자아성찰**.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고 학문적으로 추상화된 "큰 이야기"를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와 교차시켜 **진정한 자기 경험**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선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6장 "교실과 종교공동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현구 교수님>

교양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세상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료 교수님들과 두 가지 정도 신설 교과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학기 경험해보셨겠지만, 하나는 과학기술윤리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윤리, 공학윤리 등을 통해 기술과학인들에게 필요한 윤리적 태도와 규범에 관해 담론을 생산했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든 현재 여러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윤리를 다루는 수업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성인임에도 여전히 정서관리에 서투르다는 사실로부터 사회정서학습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관리와 소통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교양과목을 통해 여러분들은 소프트 스킬을 배워가시길 희망합니다. 참고로 하드 스킬이 여러분의 전공영역입니다.

☞ 교양 교과를 통해 진정한 자기 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정서관리와 소통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자유인으로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me 3. 같은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개념 제시

- 리버럴 아트 칼리지 (교양과목에 중점을 둔 학부중심 4년제 대학)

: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교양과목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교양과목이 든든한 뼈대 역할을 한다고 믿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종합대학들은 리서치 중심의 교육기관이어서 학생들이 정교수들과 접촉할 기회가 쉽지 않다. 하지만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경우 재학생 수가 훨씬 적은 관계로 정교수가 학부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이 원할 때 교수와 면담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 일부 기초 교양과목 클래스의 경우 학생 수가 40~50명 정도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이보다 학생 수가 훨씬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학생 수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2,000명, 많아야 4,000여명 정도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0대 1 혹은 그 이하다. **클래스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학생들이 토론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반면에 리서치 중심의 종합대학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철저한 학부 중심 대학이다. 대학원이 없으며 종합대학 교수들과 달리 연구보다는 티칭에 전념한다. 커리큘럼 역시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특정 분야나 학문에 특화된 지식이나 기술 보다 **일반화되고 여러 학문분야가 관련된 '학제적'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문학, 철학, 역사 등 **기본적 소양**들을 강조하고 **기능적 학문의 습득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수학, 음악, 경제 등 무엇을 공부하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된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실제적 증거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운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는 시험과 리포트 작성이 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시험도 채점하기가 쉬운 객관식으로 치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소수의 클래스라면 과제물을 주고 직접 문제점을 설명해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의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타대학 사례

<한림대학교 : 리버럴 아트 교육과정 - **삶의 큰 질문 : 인생**>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대학 신입생을 위한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자기성찰 글쓰기 강좌와 유사한 점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삶의 큰 질문' 강좌는 인생, 사랑, 즐거움과 같은 주제 중심의 밀도 있는 **질문 탐색 과정**, 고전-명저 텍스트와 디지털리터러시 기반 하이퍼텍스트를 적용한 통합 **리터러시역량 강화** 등, 15주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탐구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타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자기 성찰 글쓰기와는 변별된다. 물론 관점에 따라 '삶의 큰 질문: 인생' 강좌의 경우에는 '인생'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자기 성찰 글쓰기에서 거론되는 항목과 일부분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한 학기 동안 '대학생인 나'를중심으로 주제 탐색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수법,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법, 수업 시수, 교수자와 학습자가 인지하는 강의의 효용성 등을 살펴볼 때,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필수 및 선택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자기 성찰 글쓰기와 분명하게 차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삶의 큰 질문' 강의는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피하고 싶지만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한 삶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삶의 큰 질문' 강의와 같은 리버럴아트형 강좌가 대학 교양교육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삶의 큰 질문:인생' 강의에서 진행하였던 핵심 질문과 실제 운영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질문: 대학생인 나,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제2질문: 대학 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3질문: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4질문: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제5질문: 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가지 핵심 질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희대학교 : 후마니타스 칼리지 운영>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에 깔고 그것의 궁극적 목표를 복극성으로 삼아 다음의 다섯 층위에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지향점들을 설정한다.

1) 인간, 사회, 자연, 역사에 대한 다각적 이해방식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들을 관심대상, 접근법, 사유원칙들을 기본의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는 교육,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어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활동과 정신 가꾸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지향

2) 온갖 정보와 지식, 상충하는 진리 주장들, 상이한 가치관, 경쟁적 주장과 의견 등을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오류와 편견을 가려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내며 합리적 설명, 타당한 주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추구할 능력을 길러주고 과학적 사고습관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지향

3) 성찰의 능력과 습관을 길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하는 교육, 사회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분별할 힘을 키워주며 자신이 사는 사회의 민주적 원칙들을 지키고 발전시킬 시민적 역량들을 터득하게 하는 교육, 계층과 신분, 종교, 지역, 성차 등의 벽을 넘어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 선의와 배려와 공감의 공동체적 가치들을 체득하게 하고 사회봉사의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의 지향

4) 유연한 상상력, 열린 정신, 지구사회적 마음가짐으로 두려움 없이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인지함과 동시에 국적, 인종, 집단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사회 공통의 문제들을 풀어갈 세계 시민적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의 지향

5) 사건, 현장, 상징,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의미와 해석을 구성해내는 능력, 문서 생산력, 아름다운 것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심미적 교감과 표현의 능력, 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예술적 창조성을 존중하는 능력,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사회의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며 좋은 이야기의 사회적 유통을 촉진할 소통과 전달의 능력, 새로운 기술매체들을 유효하게 사용할 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지향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전남대학교 재학생들의 교양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 조사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전남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양의 정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교수님들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미 있는 교양교과목을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한다.

-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현황

- 교양학생평가기획단
- 교양교과목 개발 공모전
- 교양 맛보기 특강
- 재학생 핵심역량 진단

- 제작한 카드뉴스

교양이란?
여러분이 교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올바르다면 꼭 들어야만 하는 것, 전공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학 교양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교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개선하고, 교양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교육혁신본부 교양평가기획단
보다 살차고 풍부한 대학생활을 위한,
대학 교양이란 무엇일까?
살펴보러가기
교양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교양 정의 / 재학생 교양 인식 / 우리 대학 교양 프로그램

대학 교양이란 무엇일까? 대학 교양이란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인식

교양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휴학생 인식 검색

전공 수업과 비교했을 때 교양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45.1% 그저 그렇다 23.9%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1.0%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 비율 66.7%

전체 응답자(102명) 중 66.7%(68명)가 교양 수업이 전공 수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전공 지식과 관련이 없어서(30.6%),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27.8%), 전공 영역과 무관해서(22.2%)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인식

교양 수업의 유용성에 대한 재·휴학생 인식 검색

현재 개설되고 있는 교양 교과가 '현재' 또는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46.1% 그저 그렇다 23.4%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0.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응답한 학생 비율 66.7%

교양과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취업 연계 교양이 별로 없어서', '교양 과제가 많이 다른 수업에 지장을 줘서', '막연/형식 및 졸업요건을 위해 강제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서' 등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양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의 의견은?

긍정

"어렵게만 느껴지는 대학 수업을 환기시켜줘요."

교양은 알 그대로 교양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볍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모여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 씨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지식, 능력을 배울 수 있어요."

첫 학기에 수강한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 덕분에 대학 과제를 큰 도움이 됐어요. 교양만이 가지는 신선함을 잘 이용해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합니다.

남양대학교 * 씨

부정

"불필요한 교양과목을 함께 챙기는 게 힘들어요."

이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공수업인데, 교양과목을 같이 챙겨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교양과목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교양이 될 부분스러운 과목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서원대학교 * 씨

교수님께 듣는 '교양'

철학과 김은주 교수님 인터뷰

교양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로서 교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인에게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는 '자유시간의 유무'였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으로서의 자유를 그리스인들은 scholae로 불렀고, 이는 훗날 학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서양에서는 대학이 생겨났고, 직업인이 될 이들에게 전공교육을 하기 전 '시만으로서, 시만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자유학예(artes liberales)'라 불리는 교양 과목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교양이란 그런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시민을 위한, 직업인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학문입니다. 자유롭게 유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민으로 간 받음 뒤척임 사함을 위한 배움이 교양과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 교양이란 무엇일까?

교수님께 듣는 '교양'

철학과 김은주 교수님 인터뷰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생들은 교양을 통해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 꽃으로 단장한 볼도, 강력한 생명력을 내뿜는 초목의 여름도, 그리고 세상 모든 불꽃을 품어놓은 듯한 가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색을 잃고, 아이러미지 시간전 듯한 겨울도 있죠. 그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에 떠올릴만한 시조차 없다는 가을이 너무 슬피 않을까요? 너만 읽는 게 아니라라는 누군가의 따뜻한 부드러운 말 한 마디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교양 수업이란 이토록 행복한 '지금보다는 바로 그 연가'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자유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목을 선택할지 직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좋은 학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교양을 택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었지요.

대학 교양이란 무엇일까?

교수님께 듣는 '교양'

세바시 - 김학철 연세대 교수

우리는 교양을 왜 배워야 할까?

세 가지들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

1.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얼리티를 위한
2. 리얼리티를 얻는 방법
3. 리얼리티를 활용하는 인성교육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땐 멈춰야 한다'와 같이 모두가 아는 지식이 아닌,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을 학습하고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배양함을 얻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학습하는 인성교육, 그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대학 교양이란 무엇일까?

우리 대학의 교양은?

세 가지 핵심역량의 제시 및 그에 따른 교과목 마련

우리 대학은 재학생의 역량 고취를 위해 '창성', '공동체'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역량교양을 마련하였고, 이외에도 학문의 기초가 되는 기초교양, 다양한 학문 영역 및 주제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균형교양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양수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 교육혁신본부를 통해 교양교과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교양학생평가기획단
- ✓ 교양맞보기 특강
- ✓ 교양교과목 개발 공모전
- ✓ 재학생 핵심역량 진단

교육혁신본부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위한 수업,
교양을 통해 만나보자!

교양을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에 있어서 교양의 진정한 의미를 주제로 찾아다니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

이런 것도 교양에서 배울 수 있구나? 이번 학기에 들어보아주세요!

2. 교양의 본질을 담은 새로운 커리큘럼 제시

- 현재 전남대학교에도 인재상과 핵심역량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커리큘럼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에, 교양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새롭게 바로잡고 이에 걸맞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직관적인 교양교육의 책임의 이해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ex) 교양 교육의 책임

대학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교양교육은 대학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약한 초급학년 학부생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가 대학에 왜 들어왔는지, 대학은 무엇 하는 곳이며 그가 대학에서 길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방향 잡아주기에서부터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사회와 문명에 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의 응답을 탐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의 변화와 형성에 불가결한 성숙의 조건들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교양교육의 임무이고 책임이며, 바로 이런 책임 때문에 대학은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한 가지 전공에만 몰입하게 하거나 입학하자마자 취업훈련부터 받게 하는 좁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학은 기계를 길러내지 않고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협소성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교육이 교양교육이다.

- 현재 제시되고 있는 창의, 감성, 공동체 핵심역량에 대한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만, 개편되는 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확한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야 하며, 강의계획서에 반영된 핵심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및 방식을 제시하며 능동적인 학습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1. 학점 채우기 용도의 무의미한 교양 수업을 지양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학습 생태

계를 형성하며 발전하는 전남대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교양 교과목 수강에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단순 일방향적인 학습이 아닌 양방향성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캠퍼스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 대학 내에서도 교양교육의 책임과 목표를 다잡으며 뚜렷한 지향점을 내세우며 학생들과 교수자가 함께 전남대학교 인재상에 걸맞는 성숙한 인재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다.